

#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죽왕면 시민기자  
최돈불(choi3789100@hanmail.net)  
▶토성면 시민기자  
강성희(ruthcanada@hanmail.net)  
김태극

※간성·죽왕·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  
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  
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 간성 김밥천국

김밥·분식·식사류

모든 메뉴를 포장·배달해 드립니다

681-9999

##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 바다풍경 편의점

“경동대 입구·학생 환영”

각종 생활용품  
문구류·케익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79  
☎033-633-7282

간성·죽왕·토성 광고 문의  
☎681-1666~7

# 죽왕면 사회단체 녹색성장 실천

### 죽왕면번영회·수성문화제 죽왕면위원회 자전거 17대 기증

죽왕면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함께해요, 송지호 자전거 트레킹’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죽왕면 사회단체들이 잇가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기증했다.

죽왕면번영회(회장 어명선)와 수성문화제 죽왕면위원회(위원장 박상록)는 최근 죽왕면주민자치센터에 MTB자전거 10대와 미니벨로자전거 7대 등 자전거 17대를 기증했다.

이번에 지역 사회단체들이 자전거를 기증함에 따라 죽왕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선제) 주관으로 열리는 ‘함께해요, 송지호 자전거트레킹’ 행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죽왕면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와 이번에 기증받은 자전거 등 모두 23대의 자전거를 활용해 지역명소를 찾는 탐방객과 자전거 트레킹을 원하는 주민에게 연중 무료로 대여할



죽왕면번영회와 수성문화제 죽왕면위원회가 죽왕면주민자치센터에 MTB자전거 10대와 미니벨로자전거 7대 등 자전거 17대를 기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획이다.

죽왕면주민자치센터는 이번 자전거 기증이 에너지 절약과 자전거 이용 활성

화 분위기를 조성해, 일상 속에서 녹색 성장을 실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 토성면 도시 이주민 전입 신청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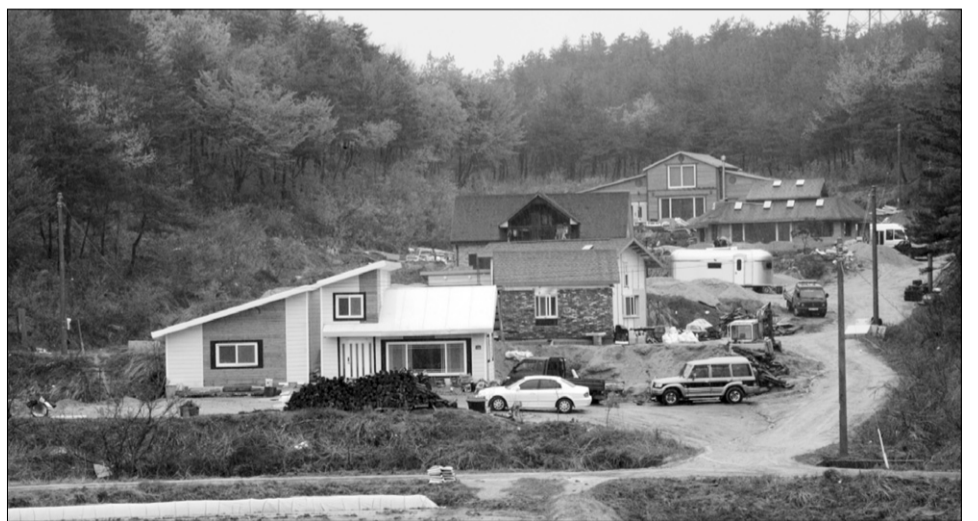
### 백촌리 예그리나마을 이어 용암리·신평리·도원2리·운봉리 전입신청 이어져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고성군 토성면이 서울·경기 등 외지인들로 부터 살고 싶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토성면 백촌리의 한골짜기에 작고 아름다운 마을인 예그리나마을(일명 골삭다리마을)은 2007년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고성 도학초교 인근으로 이사온 사람들로 부터 시작됐다.

도학초교의 체험교실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한시적으로 머물던 여러 가족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고성의 자연환경과 작은 학교의 장점 그리고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 등에 매료돼 지인들과 함께 총 5세대가 골짜기 계단식 논을 구입해 집을 짓고 정착해 살고 있다.

예그리나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작은 학교의 매력에 빠져 정착하게 됐지만, 깨끗한 자연환경속에 학습공간이 스스로 조성되는 장점과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애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토성면 백촌리의 한 골짜기에 들어선 예그리나마을(일명 골삭다리마을)은 2007년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도시생활을 접고 고성 도학초교 인근으로 이사온 사람들로 부터 시작됐다.

이밖에도 토성면 용암리에는 4동 4세대 15여명이 함께 이주해와 도시와는 다른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집을 짓고 어울리며 살고 있다.

토성면 신평리 주변에도 외지인 10동 19세대 60여명이 이사를 오려고 집을 건축하고 있다. 토성면 도원2리에 30세대 100여명이, 신평리에 36세대 120여명이, 운봉리에 11세대 40여명 등의 도시민들이 고성군에 전입하려고 건축인허가 등을 신청하고 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작지만 강한 삶의 기쁨 등 고성군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행복의 하모니가 도시민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고성군은 도시민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 안정적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에 안주할 수 있도록 진입로포장 및 상하수도 시설 구축, 관정 설치 등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